

농촌 인력난 해소 '최선'

무주군로컬JOB센터, 도농상생형 농가 일자리 사업 적극 추진

무주군로컬JOB센터는 고용노동부 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인 도농(都農)상생형 무주군로컬JOB센터 사업을 추진 하면서 농촌지역 일손부족 해소에 큰 힘을 보태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총사업비 5억 2천 만 원(국비 3억, 도비 2천, 군비 2억)이 투입되는 전북도농상생형 일자리 사업은 무주군을 비롯한 4개 기관(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전라북도·전주기전대학 산학협력단·전북인적자원개발위원회)이 참여하고 있다.

올해 직원 3명을 신규 채용해 농가 일자리팀을 구성했다. 이러한 직원 보강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지난 5월 현재 171 농가가 농촌인력을 지원받았으며, 농가일자리 구축 신청 355명, 올해 연계(중계)건수는 총 1,380건으로 무주지역 농가 인력난 해소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전북 지역 4개 JOB센터(완주, 무주, 장수, 고창) 중 우수한 실적이다. 또한 무주군로컬JOB센터는 취업연계를 위해 지역산업체에 구직자 446명을 알선해 366명을 지역일자리와 연결하는 등 지역 일자리 매칭을 위한 본연의 업무도 충실하게 추진하고 있다.

올해부터 2개도(전북, 경북)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도농상생형 농가일자리 사업은 도시민들의 일자리 부족 현상과 농촌의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금까지 참여한 구직자는 대전광역시, 경북 김천시, 경남 거창군 등 관외 도시지역 구직자가 대다수를 차지하



무주군로컬JOB센터는 고용노동부 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인 도농(都農)상생형 무주군로컬JOB센터 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촌지역 일손부족 해소에 큰 힘을 보태고 있다. (사진은 전주시니어&잡센터 업무협약 모습)

고 있다. 특히 로컬JOB센터 직원들이 무주지역 농가 현장에 직접 찾아가는 대면 사업추진으로 농가와 구직자의 필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하고 있다.

이밖에 원활한 농가일자리에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홈페이지 구축, 사고 발생에 대비한 단체 상해보험 가입, 농작업 시 편익제공을 위한 농작업용 작업비품 제공 등도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무주군로컬JOB센터는 사업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전주 시니어클럽, 경북 김천시 주민대표, 경남 거창군 구직자대표, 대전시 아파트관리사무소, 무주반딧불시니어클럽, 무주군 여성일자리지원센터, 새마을부녀회 무주군지부, 무주군가족센터와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지난달 25일에는 전라북도 농어업농

어촌 일자리플러스센터와 4개군 로컬JOB센터, 전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각종 협약을 통해 내실 있는 일자리 사업에 총력을 쏟고 있다.

경북 김천시 구직자대표 최 모 씨(58세)는 "농촌일손이 부족한 현실에서 도농상생형 농촌일자리사업으로 구직자와 농가의 원활한 연결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말했다. 이어 "농가 지원은 물론 교통비 지원을 해줘서 고맙다"며 "앞으로도 농가일자리 사업에 계속 참여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무주군로컬JOB센터 김선대 센터장은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관외 구직자 발굴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농가와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문제점들을 개선해 향후 농촌 일자리 인력수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6월 청원조회 실시

전춘성 군수, 민선 7기 마무리·내실 있는 민선 8기 준비 당부

전춘성 진안군수는 8일 열린 청원조회에서 군민의 입장에서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발로 뛰는 현장행정과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춰 마음을 읽는 친절함 공무원이 되길 당부했다.

6.1 지방선거 이후 처음 열린 이번 청원조회에서 전 군수는 선거로 인한 공백기간 동안 군정을 잘 이끌어준 부군수를 비롯한 전 직원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하며 민선 7기의 아름다운 마무리와 내실 있는 민선 8기 준비를 주문했다.

특히 민선 8기 공약사업 추진 전략을 면밀히 검토해 무엇보다 중요한 군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고, 진안군의 가장 시급한 현안문제인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를 일자리 소득창출, 관광개발, 지역인재육성, 주거여건 개선 등의 다양한 분야를 통해 극복해나갈 수 있도록 지방소멸대응 기금을 비롯해 2023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해나가자고 말했다.

또한 지난 2년간 용담호 수몰의 아픔을 겪은 군민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찾는 일에 힘써왔음에 대해 애기하며 앞으로는 용담호는 물론 주변도 귀 기울이는 발로 뛰는 현장행정과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춰 마음을 읽는 친절함 공무원이 되길 당부했다.

특히 새정부 출범에 따른 변화된 정책방향, 대내외 환경 변화를 면밀히 파악하고 변화된 환경에 맞는 군정방향을 바로 세우고 진안의 성공시대를 함께 열어나가자고 덧붙였다.

전춘성 군수는 "침체된 지역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진안의 성공시대'를 만들기 위해 다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청원조회 후에는 임진숙 행정지원과장이 나서 2023년 1월부터 시행하는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 설명하며 지역 소멸 우려를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성공적인 정착과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홍보를 당부하는 시간도 함께 가졌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 통

진안 백운동 계곡 2024년 2월까지 통제

진안군 관광명소로 손꼽히는 백운동 계곡이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 공사로 인해 오는 2024년 2월 18일(예정)까지 통제된다.

진안군은 산림청 주관으로 건립되는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이하, 산림치유원)이 지난 2021년 12월 31일 첫 삽을 뜨고, 2024년 2월 18일까지 공사를 시행함에 따라 공사기간 동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백운동 계곡 일원 통행을 통제한다.

통제되는 구간은 백운동 산림욕장 부근 임도 입구부터 백운동계곡, 덕대산, 선각산 일대(백운동 백안리 산1-2번지 일원)며 피서와 관광 목적의 계곡 이용을 비롯해 차량 및 도보 통행을 할 수 없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하반기 공공일자리 참여자 모집

장수군이 오는 13일까지 하반기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 21명을 모집한다.

이번 공공일자리사업은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공일자리 제공을 통한 생계지원 및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개 사업으로 나눠 모집한다.

신청대상은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장수군민으로 취업취약계층 등 지역경제 침체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우선 선발하며, 미달시 기준 초과자도 후순위 선발할 계획이다.

참여신청은 6월 13일까지이며 일자리경제과에 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접수하면 되며, 사업별 자격요건 및 근로능력, 재산·소득액, 취업취약계층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참여자를 최종 선발한다.

사업기간은 2개월에서 최대 4개월이며, 주 5일, 15~30시간 이내 근무 원칙으로 최저시급 시간당 9,160원이 적용된다. 최종선발자는 7월부터 사업장에 배치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군청 일자리경제과(063-350-2191)로 문의하면 된다.

/장수=고관호 기자

장수군,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집중 단속

장수군이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 1월 28일 친환경자동차법이 개정됨에 따라 급속 충전시설에만 적용됐던 과태료 부과가 공공주차장 포함 모든 전기차 충전시설을 대상으로 확대돼 충전방해 행위 적발 시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법 시행 초기 군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6월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와 충전방해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 및 과태료는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10만원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 내 또는 주변 물건 적치 행위 10만원 △충전 시간 경과(급속 1시간·완속 14시간) 후 계속 주차 행위 10만원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 고의 훼손 행위 20만원 등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축산농가 특별사료 구매자금 추가 지원

진안군은 8일 최근 사료가격 급등에 따른 축산농가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축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특별사료 구매자금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군은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미국·브라질 등 주요 수출국이 작황 불안 등을 겪고 있는 외부적 요인에 따라 국제곡물가가 상승하고 있으며 배합사료 가격이 하반기까지 총 3차례 인상할 것으로 예측돼 있어 농가 부담 완화 및 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농식품부에서 사료 구매자금을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에 한해 금리 또한 기존 1.8%에서 1%로 인하한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 3월 1차 신청시 미선정된 신청자들을 우선순위로 자금 배정 후, 오는 17일까지 수요조사를 통해 추가 자금을 배정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소, 돼지, 염소, 닭, 오리, 벌을 비롯한 모든 축산 농가며 사업장 소재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이번 지원으로 진안군 2022년 사업 규모는 농가사료 직거래활성화 사업 763백만원, 특별사료구매자금으로 2,948백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산골마을 주민 건강 위한 행복버스 달린다

삼도봉 생활권 산골마을 의료·문화 행복버스 운영

무주군의 의료·문화 행복버스가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살피기 위해 산골마을을 달린다. 전북 무주군과 충북 영동군, 경북 김천시가 민주자산(1242m)을 경계로 '삼도봉 생활권 산골마을 의료·문화 행복버스'를 운영하면서 산골마을 지역주민의 건강과 활력을 뒷받침한다.

지난 2015년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지역행복생활권 선도 사업에 선정돼 국비 5억8,100만 원을 지원받아 운행하기 시작했다. 행복버스는 올해도 오는 13일부터 12월까지 산골마을을 찾아 맞춤형 검진과 상담, 처방, 진료를 제공하며 건강 파수꾼 역할을



하게 된다.

무주군의 경우 매주 수요일(오후 1시~오후 4시) 일정에 따라, 설천면과 무풍면을 찾아 마을회관과 경로당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실시하며, 초음파검사를 비롯해 혈액검사,

간기능, 신기능, 지질검사와 심전도 검사, B형 간염검사 등을 실시한다.

이밖에 행복버스에는 초음파진단기를 비롯해 X선 촬영기, 골밀도 검사기, 체성분측정기, 심전도기, 생화학분석기 등 최신 의료 장비를 갖췄다. 또 차량에는 간호사·임상병리사 등 10명의 전문 의료팀이 배치됐다.

무주군보건의료원 보건행정과 이동훈 과장은 "검진에서 질병이나 질환이 의심되면 지역의료기관과 연계해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이어지도록 하고 있다"며 "지역 경제를 없애고 주민 삶의 질 향상과 3개 시·군의 공동발전을 위해 행복버스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